

불라 읽는
모집 요강학생부
교과 전형 6

교과 전형 합격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 수능 최저 학력 기준

2022 대입부터는 정시뿐만 아니라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확대됐다. 수시 전형에 주력하더라도 최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수능 실력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아무리 교과 성적이 우수하더라도 최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합격하기 때문에 최저 기준 충족 여부는 지원 대학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된다. 따라서 교과 성적이 높아 교과 전형을 염두에 둔다면, 꾸준히 모의고사 유형의 문제에 접근해 적응력을 높여야 한다.

취재 민경순 리포터 hellela@naeil.com
도움말 허철 수석연구원(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최저 기준 충족할 수 있다면, 지원 대학 폭 넓어져

2022 대입에선 학교장 추천 성격의 교과 전형이 증가했다. 따라서 교과 성적이 좋다면, 수시 모집에서 지원할 대학이 많아졌다. 다만 여기서 따져봐야 할 것은 최저 기준 적용 여부와 충족 가능성이다. 서울대를 제외한 주요 상위권 대학에 교과 전형이 신설되거나 확대됐으며, 최저 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대학은 연세대와 한양대뿐이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허철 수석연구원은 “추천 형태의 교과 전형이 확대됐는데 대다수 상위권 대학은 최저 기준을 설정했기 때문에 최저 기준 충족 여부는 지원 대학을 정할 때 매우 중요하다. 학생부 성적이 1등급 초반으로 우수해도 최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최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대학 중심의 지원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특히 고려대는 교과 전형인 학교 추천의 최저 기준이 인문 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 3개 영역 합 5 이내, 한국사 3등급 이내, 자연 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과학 3개 영역 합 6 이내, 한국사 4등급으로 타 대학에 비해 높다. 따라서 최저 기준을 충족하면 합격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 2021 고려대 교과 전형이었던 학교 추천형의 최저

기준 충족률은 인문 계열은 62.5%, 자연 계열은 55.9%였다. 다만, 올해는 수능 수학 성적을 계열 구분 없이 통합 산출하면서 인문 계열의 최저 기준 충족률은 낮아지고, 자연 계열 충족률은 높아질 전망이다. 중앙대가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1 주요 전형 경쟁률 및 충원 합격률을 보면 학생부 교과의 경우 최저 기준을 충족하면 실질 경쟁률이 최초 경쟁률의 절반 정도로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교과 전형은 다른 전형에 비해 경쟁률이 낮고 충원율도 높다. 일부 대학을 제외하곤 면접도 실시하지 않아 특별히 준비할 것도 없다. 따라서 교과 전형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학생부 성적뿐만 아니라 수능 성적을 잘 챙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대입은 크게 수시와 정시로 나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정시 전형이 대표적이죠. 전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자료는 대학의 모집 요강입니다. 매주 하나씩 각 전형을 모집 요강 뜯어보기로 낱알이 파헤칠 예정입니다. _편집자

대학별 모집 요강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확인하기

/ 2022학년도 수시 전형별 세부사항 /

한양대학교

학생부교과(지역균형발전)

❖ 학생부교과 100%

❖ 수능 면제, 면접 없음

❖ 학생부 외 제출서류 없음

● **최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한양대**
한양대 교과 전형인 지역 균형 발전은 학생부 교과 100%로 선발하면서 최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최저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합격자의 학생부 교과 성적이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보다 높다.

**세 영역 등급 합으로
최저 기준을 설정한 고려대** ●

고려대는 인문 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 영역 중 3개 합 5 이내, 한국사 3등급, 자연 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과학 4개 영역 중 3개 합 6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이다. 자연 계열은 수학에서 <미적분> 또는 <기하>를 선택해야 한다. 탐구는 2개 과목 평균을 반영한다.

3.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고려대학교

모집단위	최저학력기준
인문계 모집단위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탐구(택 2) 4개 영역 중 3개 영역 등급의 합이 5 이내 및 한국사 3등급 이내
자연계 모집단위 (의과대학 제외)	국어*, 수학*, 영어, 과학탐구(택 2) 4개 영역 중 3개 영역 등급의 합이 6 이내 및 한국사 4등급 이내
자연계(의과대학)	국어*, 수학*, 영어, 과학탐구(택 2) 4개 영역 등급의 합이 5 이내 및 한국사 4등급 이내

※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에서 탐구영역을 포함할 경우 탐구영역은 별도 지정과목이 없으나 반드시 2개 과목을 응시해야 하며 2개 과목 평균등급으로 반영함(단, 직업탐구는 인정하지 않음)

※ 탐구영역 2개 과목은 동일 분야 Ⅰ + Ⅱ를 인정하지 않음(예: 화학 Ⅰ + 화학 Ⅱ)

마.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서강대학교

지원계열	수능 최저학력기준
전 계열	국어, 수학, 영어, 탐구(사회/과학/지입 - 1과목) 4개 영역 중 3개 영역 각 3등급 이내이고 한국사 4등급 이내

※ 지원 계열에 따른 응시영역 내 선택 과목 간 구분을 두지 않음(국어, 수학, 탐구)

※ 위 사항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능최저학력기준의 변경이 반영된 내용임**

● **인문·자연 계열 동일하게
최저 기준을 설정한 서강대**
서강대 교과 전형인 교교장 추천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 영역 중 3개 영역 각 3등급 이내이고, 한국사 4등급 이내다. 서강대는 다른 서울 주요 대학과 달리 자연 계열에 따른 선택 과목을 지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확률과 통계>와 사회탐구 선택해도 자연 계열에 지원할 수 있다.

**최저 기준에서 영어를
별도로 적용한 성균관대** ●

성균관대의 최저 기준은 계열 상관없이 국어, 수학, 탐구(2개 과목 평균) 중 2개 합 5 이내, 영어 3등급, 한국사 4등급이다. 영어를 3등급으로 별도 지정한 것을 기억해야 한다. 탐구 영역은 2개 과목 평균 산출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인문 계열은 수학, 탐구에서 과목 구분이 없지만, 자연 계열은 수학은 <미적분>과 <기하> 중 선택하고, 탐구는 과학탐구에서 2개 과목을 선택해야 지원할 수 있다. ㉔

성균관대학교

수능 최저학력기준	[인문계] 국어, 수학, 사탐/과탐(2개 과목 평균) 중 2개 등급합 5 이내 및 영어 3등급 · 한국사 4등급 이내 [자연계] 국어, 수학, 과탐(2개 과목 평균) 중 2개 등급합 5 이내 및 영어 3등급 · 한국사 4등급 이내 ※ 1. 탐구영역 2개 과목 평균 산출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 2. 인문계는 제2외국어/한문을 탐구영역 1개 과목으로 대체 가능
	수능 필수응시영역 인문계 : 국어, 수학, 영어, 사탐/과탐(2개 과목), 한국사 자연계 : 국어, 수학(미적분, 기하 중 택1), 영어, 과탐(2개 과목), 한국사